

## 자원순환형 재활용문화 적극홍보



이 종 원

(사)한국PET병재활용협회 회장

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순간들이 아쉬움을 남긴 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면, 2006년 새해에는 또 다른 순간들이 구름처럼 다가와 우리를 설레게 할 것입니다. 아쉬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고 후회는 항상 하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시간들에 대한 부푼 기대로 아쉬움과 후회의 얼룩진 자국들을 지워가며 우리는 소중한 순간들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.

돌이켜보면, '다사다난'이란 한 마디로 다 담아내기엔 부족할만큼 지난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정보통신, 문화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즐기세포 논란의 국가적 충격에 이르기까지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사건들과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.

국내 포장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환경오염문제와 맞물려 친환경적 포장재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면서 한국포장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, 환경보전이라는 무거운 책임 속에서 조용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.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한국포장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며 포장재의 품질향상 및 포장재 기술개발,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개발을 통해 건전한 포장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한국포장협회와 국내 포장산업 관련 업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

과거는 미래를 살아가는 길잡이며, 역사는 다가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훌륭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해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2006년 한해를 더 보람차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어두운 면을 간과하지 않되 밝은 면을 보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사고, 변화의 물결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올해를 맞이한다면 다가올 1년은 우리에게 커다란 열매를 안겨 줄 것입니다. 포장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금껏 흘려온 땀방울이 먼지로 뒤덮인 세상을 씻겨주는 물줄기가 되어 2006년은 좀 더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, 한국포장협회와 더불어 우리 (사)한국PET병재활용협회도 친환경적 포장재의 사용이 늘어나고 자원순환형 재활용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.

2006년 새해는 '환경'이라는 두 글자가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새롭게 각인되어,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, 국내 포장업계와 관련단체 모두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 ☺